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 Esteem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in Urban and Rural Community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아동학전공
전임강사 조 성 연

Major in Child and Family Studies, Hoseo Univ.
Full Time Instructor : Cho, Songyo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및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related with children's self-esteem in urban and rural community.

Subjects were 435 boys and girls enrolled in grade 4, 5, 6 and their mothers from five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Chonan city and Naju city. The instruments for the study were Coopersmith's Self Esteem Inventory,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and questionnaire on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r, one-way ANOVA, t-test and Duncan post hoc 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Children's self esteem and 'Affection' and 'Achievement' of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were a positive correlation.
2. Children's self esteem of urban community was higher than that of rural community.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of urban community was 'Active Involvement' and that of rural community were 'Authoritarian Control', 'Overprotection' and 'Achievement'.

3.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 esteem with family size.
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elf esteem with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monthly family income; the higher parent's educational level and the more monthly family income, the higher children's self-esteem.
5.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with 'Achievement' by parent's age, monthly family income, and family size, in 'Reasoning Guidance' and 'Active Involvement' by parent's educational level, in 'Authoritarian Control' and 'Overprotection' by monthly family income, and in 'Reasoning Guidance' and 'Authoritarian Control' by family size.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가지의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가깝게는 가정환경과 이웃, 멀리는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 등의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게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환경속에서 인간은 복합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 발달해 나가는데, 그중에서 가족체계 및 가정환경은 개인의 독자적인 자아존중감이나 행동특성을 형성시키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으로서 아동과 가장 밀접하고 오래 지속되어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Coopersmith, 1981)으로,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기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로서 자신이 행하는 일의 성공을 예견하는 수준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서봉연과 유안진, 1983). 자아존중감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Johnson, Shulman & Collins, 1991; Wu, 1997),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존중, 수용, 관심있는 대우와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 등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 발달해나간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최초의 경험의 장인 가정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특히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된다. 그리하여 가정생활을 통해서 획득된 기본적인 자아존중감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개인 성격의 바탕을 이루게된다. Coopersmith(1981)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그의 가족적 경험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의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긍적적이며, 성취에 대해 칭찬해주며, 자녀에게 관심이 많고, 그 관심을 표현해주고, 자녀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여 이것들을 자녀지도와 훈육에 일관성있게 사용하며 애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Mussen, Conger와 Kagan(1969)은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자녀로 하여금 행복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이며, 9, 10세경 뚜렷해지고, 12세경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rikson(1959)도 아동 후기가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사회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문명의 이기와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역사회간 차이가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도 도시와 농촌 등은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Bronfenbrenner와 같은 학자들은 생태학적인 많은 요인들이 아동의 발달에 중요하고, 그 영향도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생태학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관련된 연구들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으로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환경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으로서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가족크기 등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 변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이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모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가족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매우 광범위한 연구 주제의 하나로서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자신감, 자기존중감, 지기수용, 자아개념 등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는데, 이중 자아개념은 자아존중감과 특히 혼동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자아존중감이 자아개념보다 한정적이며, 일관성있는 개념이라는 것과 그 의미에 있어서 평가적·감정적 요소가 내포되므로 양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등의 이유로 인해 자아를 주제로 한 연구들에서 자아개념보다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채택하는 경향이 많다(김경연, 1987). 어찌되었든 자아존중감, 자기존중감, 자아개념 등의 자아지각은 한 인간의 발달적 변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추가 되고,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성격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됨으로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 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Coopersmith (1981)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Newman과 Newman(1983)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라는 두가지 경험에 대한 자기평가의 결과라고 하였다. 또한 Mussen, Conger, Kagan과 Huston(1984)은 자신의 지각된 성격 또는 특질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며, 자신의 속성이나 단면에 대하여 은연중에 배정한 자기 평가의 총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지각한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감정적 태도로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 정의하며, 조작적으로는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검사(SEI) 점수의 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 사회심리학 이론, 현상학적 이론, 실존주의적 이론 등이 있는데(박정선, 1985), 본 연구에서는 사회심리학 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심리학 이론에서는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개념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학습된다고 본다. 즉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이 개인 스스로를 지각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이에는 반영효과(mirroring effect, reflective effect)와 모방효과(modeling effect, imitative effect)가 있다. 반영효과에 의하면, 아동은 특히 중요한 타인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

아존중감이 발달한다는 것이고, 모방효과는 아동의 행동특징 뿐 아니라 태도도 주변 인물의 모방을 통하여 획득된다고 본다. 특히 타인의 태도를 자신의 태도로 통합하는 과정을 동일시라 하며 모방과 구분하기도 하나, 상당수의 심리학자들은 이 구분을 의미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김경연, 1987). 따라서 아동은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하고 모방하며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도 모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입장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중요한 타인 혹은 모델로서 모두 부모의 영향을 중요시하고 있다.

2.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요인

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자아존중감 연구에서는 대부분 환경적 경험 혹은 사회적 경험을 중요시하며,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아개념과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부모가 애정적, 수용적 태도를 지닐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부모가 구속적이고 거부적인 행동, 무관심, 비난, 억압, 통제와 위협 등을 나타낼수록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김경연, 1987; 김숙경, 1986; 박영애와 정옥분, 1996; 손화희와 윤종희, 1990; 양혜승, 1973; 오순환, 1991; 장도현, 1984; 한종혜, 1996; 홍준표, 1974; Baumrind, 1972; Coopersmith, 1981; Graybill, 1978; Sears, 1970; Young, 1993). 이와 다르게 Demo, Small과 Savin-Williams(1987), 김경연(1987), 김성연(1981), 김정자(1987) 등은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거나, 상관이 없다는 상치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일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자녀들의 사회화의 모델로 부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즉 부모의 애정적 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고, 부모의 통제적 태도, 주의부족, 애정 결핍, 규칙 부족, 엄한 벌, 그리고 가족의 긴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의 정도를 저하시킨다.

2)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도시 아동이 다른 지역의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점수를 나타내며(김정자, 1987; 이주옥, 1987), 도시지역에서도 중류층 아동이 하류층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자아존중감 점수를 나타내었다(김순영, 1987; 김영애, 1981; 손화희와 윤종희, 1990; 오순환, 1991; 정숙자, 1984; Demo & Savin-Williams, 1983; Trusty, Peck & Mathews, 1994). 이러한 결과에 대해 김영애(1981)는 상류층 아동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며, 가치있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하나, 하류층 아동은 생활이 불안정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Hill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다양한 문화적 조건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의 쇠퇴를 가져옴으로서 열등감이 심해지고 따라서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손화희와 윤종희, 1990, 재인용).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도시의 부모들이 다른 지역의 부모들에 비해 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이며, 비판적이고, 더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많이 하며,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오성심과 이종승, 1982; 오순환, 1991; 이숙, 1991; 주리분, 1982). 그러나 윤세룡(1987)은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고, 농촌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며,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시키며, 자녀에 대해 더 통제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Trowbridge(1972)는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아동의 자아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몇몇 연구들은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아동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진 부정적인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반면, 다른 연구들은 낮은 사회경제

적 계층 아동들의 자아개념이 중류계층 아동들의 자아개념보다 더욱 긍정적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가족크기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비일관적인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낮지만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김순영, 1987; 김영애, 1981; 손화희와 윤종희, 1990; 윤세룡, 1987; 정숙자, 1984),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김순영, 1987; 김영애, 1981; 손화희와 윤종희, 1990; 오순환, 1991; 정숙자, 1984), 가족크기가 클수록(손화희와 윤종희, 1990)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환경 변인들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운현선, 1983)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일치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도시 지역으로는 충청남도 천안시를, 농촌 지역으로는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을 선정하여 천안시 지역에서 2개 공립 초등학교와 나주시 지역에서 3개 공립 초등학교를 무선 선정하였다. 천안시와 나주시를 선정한 이유는 두 지역이 지리적으로 대도시 주변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고(천안시는 서울특별시에서 1시간,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에서 50분), 행정적으로는 두 지역 모두 기존의 군(郡)을 합하여 시(市)로 승격되는 등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자체의 특성면에서 살펴보면 천안시는 주변에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의 큰 공장등이 많이 있고, 도시내에 관공서나 사무실 등이 많아 부모들의 직업유형이 전문, 관리직이 많기 때문에 도시적인 성격을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나주시는 주변에 중소기업체나 큰 공장 등이 적고, 부모들의 대부분이 원예와 농업, 혹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농촌의 성격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선정된 지역중 천안시에서는 각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의 2개 학급을 무선으로 집락 표집하고, 집락 표집된 학급 내에서 남녀 아동 15명씩 30명을 무선표집하였다. 그 후 표집된 아동의 어머니가 선정되었다. 나주시에서는 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학급 내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3개 학교의 아동들 중에서 천안시에서 표집된 아동과 동수가 되도록 아동을 무선 선정하고, 그에 따라 어머니가 선정되었다. 그리하여 연구 대상자수는 남녀 각 360명씩 720명과 그 어머니 720명의 총 1,440명이었다. 그러나 실시된 검사도구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료처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최종 연구대상자수는 천안시에서 남녀 아동 200명(남 98명, 여 102명)과 나주시에서 남녀 아동 235명(남 113명, 여 122명)의 435명과 그 어머니 435명의 총 870명이었다. 이는 원래 연구대상자수의 60.4%에 해당된다. 여기서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Mussen과 그의 동료들(1984), Erikson(1950) 등이 지적하였듯이 아동후기가 자아존중감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실제 아동기 자아개념이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9세 이후, 즉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검사

Coopersmith(1982)의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ies: SEI)중 8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용(School Form)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8개 허위 문항을 포함한 총 5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와 같다' 혹은 '나와 같지 않다'의 2개 선택형 반응을 하도록 되어있다. 검사 요강에는 전체 자아존중감 검사에 대하여 4개 하위척도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총점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검사도구는 '나와 같다'의 23 문항과 '나와 같지 않다'의 27 문항에 대해 각각 2점을 주어 0점에서 100점의 점수범위를 이룬다. 본 검사의 Cronbach α값은 .80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조사는 박성연과 이숙(1989), 이숙(1990) 등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거친 「어머니의 양육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늘 그렇다'(5점), '그런 편이다'(4점), '반반이다'(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로 평가된다. 이 척도는 합리적 지도(9문항), 애정(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과보호(9문항), 성취(6문항), 적극적인 참여(6문항), 일관성있는 규제(3문항)의 7개 하위영역의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각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되었다.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연구자들에 의해 .62-.79의 범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숙, 1990).

3) 가정 환경 질문지

가정 환경 질문지는 대상 아동의 부모 연령, 부모 교육수준, 부모 직업유형, 가정의 월평균 소득 및 가족크기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에 의하여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연구자에 의해 1995년 5월 8일 부터 6월 20일에 걸쳐 천안시와 나주시에서 표집된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및 가정환경 질문지가 실시되었다. 먼저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자아존중감 검사가 실시되었다. 그 후 표집된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질문지와 가정 환경 질문지를 아동편에 집으로 보내어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PC+를 이용하여 모든 변인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분석되었다.

첫째 연구문제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는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이 실시되었다.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는 Cronbach α계수가 산출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지역별 연구대상자수, 부모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유형,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가족크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지역에 따른 학년별, 성별 사례수

학 년	도 시		농 촌		소 계		전 체
	남	여	남	여	남	여	
4	39	34	37	40	76	74	150
5	34	33	32	30	66	63	129
6	25	35	44	52	69	87	156
소계	98	102	113	122	211	224	435
전체	200		235		435		435

〈표 1〉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남아가 211명으로 48.5%를, 여아는 224명으로 51.5%가 연구대상이 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아동이 200명으로 46.0%이고, 농촌지역의 아동은 235명으로 54.0%로서 농촌지역의 아동이 도시지역의 아동에 비해 약간 더 많은 조사대상이 되었다.

〈표 2〉에서 보면 도시지역의 아버지는 36-40세가, 농촌지역은 41-45세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경우

〈표 2〉 지역별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도 시		농 촌		전 체	
		부	모	부	모	부	모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부모 연령	35세 이하	9(4.8)	47(25.3)	4(1.9)	36(17.0)	13(6.6)	83(20.9)
	36~40세	90(48.4)	115(61.8)	63(30.0)	111(52.4)	153(38.6)	226(56.8)
	41~45세	73(39.2)	23(12.4)	76(36.2)	48(22.6)	149(37.6)	71(17.8)
	46~50세	12(6.5)	1(0.5)	42(20.0)	11(5.2)	54(13.6)	12(3.0)
	51세 이상	2(1.1)		25(11.9)	6(2.8)	27(6.8)	6(1.5)
	계	186(100)	186(100)	210(100)	212(100)	396(100)	398(100)
부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9(15.8)	58(31.7)	123(59.4)	168(80.4)	152(38.9)	226(51.7)
	고졸	104(56.5)	103(56.3)	73(35.3)	37(17.7)	177(45.3)	140(35.7)
	대졸	47(25.5)	22(12.0)	11(5.3)	4(1.9)	58(14.8)	26(6.6)
	대학원졸	4(2.2)				4(1.0)	
	계	184(100)	183(100)	207(100)	209(100)	391(100)	392(100)
부모 직업 유형	전문기술직	9(4.9)	6(3.2)	1(0.5)	1(0.5)	10(2.5)	7(1.8)
	행정관리직	18(9.7)	0(0.0)	1(0.5)	0(0.0)	19(4.7)	0(0.0)
	사무관리직	57(30.8)	12(6.5)	11(5.1)	5(2.3)	68(16.9)	17(4.2)
	판매직	43(23.2)	26(14.1)	16(7.4)	16(7.3)	59(14.7)	42(10.4)
	서어비스직	10(5.4)	11(5.9)	7(3.2)	7(3.2)	17(4.2)	18(4.5)
	농림·어업	0(0.0)	1(0.5)	160(73.7)	153(70.2)	160(39.8)	154(38.2)
	생산·운수	48(26.0)	7(3.8)	18(8.2)	4(1.8)	66(16.8)	11(2.7)
	가정주부·무직	0(0.0)	122(66.0)	3(1.4)	32(14.7)	3(0.8)	154(38.2)
	계	185(100)	185(100)	217(100)	218(100)	402(100)	403(100)
가정의 월평균 소득	50만원이하	3(1.6)		62(30.7)		65(16.8)	
	51~100만원	42(22.7)		76(37.6)		118(30.5)	
	101~150만원	82(44.3)		35(17.3)		117(30.2)	
	151만원이상	58(31.4)		29(14.4)		87(22.5)	
	계	185(100)		202(100)		387(100)	
가족 크기	3명 이하	22(11.3)		8(3.5)		30(7.1)	
	4명	113(58.3)		40(17.5)		153(36.2)	
	5명	40(20.6)		65(28.4)		105(24.8)	
	6명 이상	19(9.8)		116(50.6)		135(31.9)	
	계	194(100)		229(100)		423(100)	

에는 두지역 모두 36-40세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46세 이상의 고연령층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부모들(부: 31.9%, 모: 8%)이 도시지역의 부모들(부: 7.6%, 모: 0.5%)에 비해 더 많았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부모들이 농촌지역의 부모들에 비해 더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즉 농촌지역은 부모 모두 중졸이하가 가장 많은데 비해, 도시지역의 부모들은 고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직업유형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의 경우 아버지들은 주로 사무관리직이 많았고, 농림·어업에의 종사자는 전혀 없었다.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며, 함께 같은 직종에 참여함으로서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었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있어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은 75.7%가 100만원 이상의 월평균 소득을 취하나, 농촌지역은 100만원 이하가 68.3%로서 커다란 소득 격차를 나타내었다. 가족크기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경우 가족크기가 5명 이상이 79%인데 비해, 도시지역은 4명 이하가 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별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상관계수(N=425)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자아존중감	도시 (n=195)	.1722**	.1390*	-.1281*	-.0567	.0727	.0842	.1371*
	농촌 (n=230)	-.0243	.1373*	.0982	.0070	.1233*	-.0032	-.0766
	전체 (N=425)	.0740	.1454***	-.0384	-.0610	.0814*	.0609	.0257

*p〈.05 **p〈.01 ***p〈.001

〈표 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애정'과 '성취'요인에서만 각각 유의도 0.1%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정적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oopersmith(1981)가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태도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부모가 애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는 많은 선행연구들(김경연, 1987; 김숙경, 1986; 박영애와 정옥분, 1996; 손화희와 윤종희, 1990; 양혜승, 1973; 오순환, 1991; 장도현, 1984; 한종혜, 1996; Baumrind, 1972; Coopersmith, 1981; Graybill, 1978; Sears, 1970; Young, 199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할수록, 그리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로 약간 다른 상관관계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도시지역에서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합리적 지도'($p<.01$), '애정', '일관성있는 규제'($p<.05$)에서 의의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권위주의적 통제'와는 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애정'과 '성취'에서만 모두 5% 유의도 수준에서 의의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어머니가 아동을 도와주거나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설명해줄수록 아동에게 언어적·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줄수록 아동의 흥미나 능력을 존중해 주고, 아동을 무시하거나 벌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아동에게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 대해 자신이 있고 어머니 자신이 일관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opersmith(1981)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태도로서 지적했던 첫째, 아동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아동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태도, 둘째, 규칙의 설정과 부과에 있어서 엄격하며, 아동에게 높은 행동표준을 고수하는 태도, 셋째, 훈육은 비강제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태도, 넷째, 아동의 견해를 존중하고 가족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민주적인 태도와 합치되는 것이다.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 줄수록, 그리고 아동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할수록 아동은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형성, 발달됨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이 중요하며, 이것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을 지적한 사회심리학적인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학년과 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년별, 성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관계수(N=425)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
자아존중감	학년	4(n=149)	.2270**	.1890**	.0210	-.0524	.1700*	.1808*	.1739*
		5(n=122)	-.1472	-.0072	.0926	.0513	.0110	.0071	-.0818
		6(n=154)	.1189	.2235**	-.1816*	-.1571*	.0571	.0227	-.0099
	성	남(n=203)	.0382	.1354*	-.0514	.0134	.1258*	-.0037	.0301
		여(n=222)	.1033	.1576**	-.0305	-.1348*	.0481	.1286*	.0194

*$p<.05$ **$p<.01$

〈표 4〉에서 보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는 학년에 따라 다른 상관관계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4학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합리적 지도'와 '애정' ($p<.01$), '성취',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있는 규제' ($p<.05$)에서 의의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학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애정'에서 유의도 1% 수준에서 의의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에서는 유의도 5% 수준에서 의의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5학년의 경우에는 의의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4학년의 경우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주며, 아동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기대가 높을수록, 아동과 함께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아동이 요청하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자극을 많이 줄수록, 그리고 아동에게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데 있어서 일관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학년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아동중심적이면서 아동을 존중·수용해줄수록,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조장해주고 보상해줄수록, 그리고 아동의 흥미나 능력을 어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강요하지 않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수준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Mussen과 그의 동료들(1969)이 지적하였듯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9, 10세경 뚜렷해지다가 12세경 안정된 양상을 보인다고 한점으로 미루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또한 초등학교 6학년경에는 바아흐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됨으로서 아동들이 부모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에 반발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5학년의 경우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의의있는 상관관계가 산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더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성에 따라 살펴보면 남아인 경우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애정'과 '성취' 요인에서 의의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여아인 경우에는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에서 의의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과보호'와는 의의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처럼 성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남아의 경우에 어머니가 아동중심적이고, 아동을 존중·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양육행동을 지닐수록, 그리고 아동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에는 애정적인 측면은 남아와 같았으나, 여아는 어머니가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지지해주고 보상해줄수록,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과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영애와 정옥분(1996)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다. 즉 남아의 경우 부모가 거부·제재적이고, 허용·방임적일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부모의 관심있는 태도가 남아에게는 긍정적 강화를 주고 여아에게는 부정적 강화를 주었다는 박춘심(197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어머니들이 성에 따라 다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남아에게는 성취지향적이고 독립적일 것을 강조하지만, 여아에게는 과제지향적이고 의존적일 것을 요구함으로서 아동의 요구에 대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양육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 지역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도시지역의 아동들이 농촌지역의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함으로서 이들 지역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의 아동이 농촌지역의 아동에 비해서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순영(1987), 김영애(1981), 김정자(1987), 손화희와 윤종희(1990), 오순환(1991), 이주옥(1987), 정숙자(1984), Demo와 Savin-Williams (1983), Trusty, Peck와 Mathews(1994) 등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은 도시가 다른 지역

〈표 5〉 지역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

	도 시		농 촌		t
	평균	SD	평균	SD	
자아존중감	55.71	13.89	51.77	12.26	3.12*
합리적 지도	36.81	4.18	35.92	5.17	1.95
애정	33.27	5.97	32.54	5.94	1.27
권위주의적 통제	25.18	5.20	26.89	5.00	-3.49**
과보호	23.05	5.29	25.89	5.39	-5.52***
성취	23.54	3.39	24.24	3.59	-2.07*
적극적인 참여	19.61	3.60	18.33	4.15	3.41*
일관성있는 규제	10.28	2.19	10.19	2.38	.40

*p < .05 **p < .001 ***p < .0001

에 비해 더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냄으로서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이의 영향을 받아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생각해볼 때,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은 월평균소득과 교육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와 '적극적인 참여'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산출하였다. 즉 도시지역의 어머니들은 '적극적인 참여'에서,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은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요인의 평균에서 상대지역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이 도시지역의 어머니들에 비해 권위주의적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아동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반면, 도시지역의 어머니들은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동과 함께 적극적·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과 더 잘 놀아주고,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제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더 많이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윤세룡(1987)이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고, 농촌의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며, 자녀의 의존성을 조장시키며, 자녀에 대해 더 통제적이라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Graybill(1978)이 도시의 부모들이 농촌의 부모들에 비해 더 성취지향적이고, 더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많이한다는 결과는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수직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성격을 더 많이 지닌다는 가족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즉 농촌의 부모들은 도시의 부모들에 비해 자녀들에 대해 더 권위주의적이어서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김정자(1987)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구결과 지방의 부모들이 더 높은 성취의욕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지방의 부모들이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수준을 높게 잡고 발전하려는 경향을 지님으로서 자녀들을 과보호하고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강요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동들에게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며, 벌을 사용하며,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아동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도 높으면서 아동에게 매일의 일과를 정해놓고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게 한다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의 차이

1)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부모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F 검증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

〈표 6〉 부모 교육수준에 따른 지역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의 차이검증 결과 및 Duncan 검증결과

		부			모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자아존중감	F	3.25*	.30	4.56*	4.33*	1.13	5.58*
	Duncan	3, 2〉1		3〉1, 2	3, 2〉1		3, 2〉1
합리적 지도	F	1.18	3.06*	4.02**	2.18	3.44*	6.33**
	Duncan		2〉1	3, 2〉1		2〉1	3, 2〉1
애정	F	1.07	.31	1.01	1.38	.78	1.96
권위주의적 통제	F	1.18	3.34*	.47	3.40*	.97	2.50
	Duncan		2, 1〉3		3〉1, 2		
과보호	F	3.54*	1.48	4.94**	2.31	.43	6.17**
	Duncan	3〉2, 1		1, 3〉2			1〉2
성취	F	3.23*	.70	.93	4.69*	.03	2.98
	Duncan	3〉1, 2			3〉1,2		
적극적인 참여	F	4.17**	2.97	8.68****	4.84**	.71	7.28***
	Duncan	4, 3, 2〉1		3〉1, 2 2〉1	3, 2〉1		3, 2〉1
일관성 있는 규제	F	4.85*	1.90	4.71**	6.14*	.04	2.83
	Duncan	3〉1, 2 2〉1		3〉1, 2 2〉1	3, 2〉1		

*p〈.05 **p〈.01 ***p〈.001 ****p〈.0001
Duncan 검증 결과 부등호는 α〈.05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표시함.

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전문대·대졸 이상이 고졸 이하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 전문대졸·대졸의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의 교육수준과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도시지역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성취동기를 강조할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김순영(1987), 김영애(1984), 손화희와 윤종희(1990), 정숙자(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버지의 경우, '합리적 지도'. '과보호', '적극적인 참여'와 '일관성있는 규제'가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합리적 지도', '과보호', '적극적인 참여'에서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권위주의적 통제',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있는 규제'가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합리적 지도'와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합리적 지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2)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가족크기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가족크기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유의도 1% 수준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지역별로는 의의있는 차이가 산출되지 않았다. 즉 가정의 월평균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순영(1987), 손화희와 윤종희(1990), 오순환(199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성취', '과보호'가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를 산출하였다. 이를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에서는 도시지역에서는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지역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일관성있는 규제'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크기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나 지역별로 아동의 자아존중감에서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윤현선(1983)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 하겠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족크기가 작을수록 합리적 지도와 성취를 자극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가족크기가 클수록 권위주의적 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농촌지역에서 가족크기

〈표 7〉 지역별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가족크기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및 Duncan 검증결과

		월평균소득			가족크기		
		도시	농촌	전체	도시	농촌	전체
자아존중감	F	1.92	.82	4.60*	.88	.90	1.71
	Duncan			4〉2, 1 3〉2			
합리적 지도	F	.97	1.11	1.24	.74	.96	2.49*
	Duncan						1, 2, 3〉4
애정	F	1.75	.41	1.03	1.26	.91	1.05
	Duncan						
권위주의적 통제	F	.56	2.77*	3.42*	1.96	2.07	2.33*
	Duncan		2〉4	2, 3〉4			4〉2, 3
과보호	F	2.09	.30	5.86***	.68	1.68	1.67
	Duncan			1, 2〉4, 3			
성취	F	1.56	1.66	2.80*	1.74	4.25*	2.52*
	Duncan			1〉4, 3, 2		1, 2, 4〉3	1, 2, 3〉4
적극적인 참여	F	.32	.92	1.69	.01	.61	1.20
일관성 있는 규제	F	1.48	3.57*	2.31	1.13	1.95	1.65
	Duncan		1〉2, 4				

*p〈.05 **p〈.01 ***p〈.001
Duncan 검증 결과 부등호는 α〈.05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표시함.

가 작을수록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방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족크기가 클수록 어머니에게 많은 양의 가사부담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아동을 무시하며 벌을 사용하여 강요하는 양육방식을 사용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크기가 작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녀의 발달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것을 격려해주며, 자녀를 도와주거나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합리적 지도', '권위주의적 통제', '성취'요인에서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는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농촌지역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성취'요인에서만 의의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기된 연구문제에 따라 검증된 결과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애정과 성취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합리적 지도, 애정과 일관성있는 규제는 정적 상관관계를, 권위주의적 통제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애정과 성취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둘째, 도시지역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농촌지역 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높다. 또한 도시지역의 어머니는 적극적인 참여 형식의 양육행동을 나타내고, 농촌지역의 어머니들은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와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셋째,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가족크기에 따라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은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가족크기가 작을수록 성취를 강조하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합리적 지도와 적극적인 참여의 양육행동을, 가정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권위주의적 통제와 과보호의 양육행동을, 가족크기가 작을수록 합리적 지도의 양육방식을 그리고 가족크기가 클수록 권위주의적 통제의 양육행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과 그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핵가족과 확대가족과의 관련성, 가족 구성원 각자와의 관련성, 부모의 발달주기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지역형태를 도시와 농촌으로 대별하여 연구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 세분화하여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내의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형태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등의 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자료가 수집됨으로서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대상 아동의 연령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연령범위에 걸친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자아존중감의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자아존중·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 김성연(1981). 부모의 양육태도와 어린이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적과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3) 김순영(1987). 아동기에 있어서의 자아개념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4) 김영애(1981). 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계층간의 상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5) 김영희(1980).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6) 김희화, 김경연(1996). 한국 아동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4(5), 1-12.
7) 박성연, 이숙(1990).「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8) 박영애,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40.
9) 서봉연, 유안진(1983). 인간발달.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
10)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6.
11) 송인섭(1990).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 양서원.
12) 오순환(1991).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3) 운현선(1983).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4)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47-61.
15) 이숙(1991).「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타당화를 위한 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1), 189-201.
16) 이인영, 이희자(1995).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8(1), 113-124.
17) 이정열(1986). 가정환경 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8) 이주옥(1987). 지역형태에 따른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의 성역할 유형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8(1), 31-48.
19)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 임정선(1985).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1) 장도현(1984).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2) 정숙자(1984).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3) 주리분(1982). 유아의 자아개념과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4) 한종혜(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5) 홍은화(1985).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요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6) Bledsoe, J. C. (1964). Self concepts of children and their intelligence, achievement, interests and anxiet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20*, 55-58.

27) Baumrind, D. (1972). Socialization and instrument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In W. W. Hartup(Ed.), *The young child : Review of research*. (Vol. 2). Washington, D. 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8) Brown, D., Fulkerson, K., Furr, S., Ware, W., & Voight, N. (1984). Locus of control, sex role orientation, and self-concept in black and white 3rd and 6th grade male and female leaders in a rural commun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 717-721.

29) Cho, Haejoang. (1981). A study of changing rural communities in Korea. *Korea Journal, 21*, 18-25.

30)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 of self-esteem*.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31) Demo, D. H. & Savin-Williams, R. C. (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rli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763-774.

32)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 1

33) Graybill, D. (1978). Relationship of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to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Psychology, 100*, 45-47.

34) Halpin, G., Halpin, G., & Whiddon, T. (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 and white childr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1*, 189-195.

35) Johnson, B. M., Shulman, S., & Collins, W. A. (1991). Systematic patterns of parenting as reported by adolescents: Developmental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outcome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2), 235-252.

36) Lerner, R. M. & Hultsch, D. F. (1983). *Human development : A life span perspective*. NY : McGraw-Hill.

37)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NY : Harper & Raw.

38)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A.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Y : Happer & Raw.

39) Newman, B. M. & Newman, P. R. (1983). 현대 발달심리학. 박아청(역). 서울 : 형설출판사.(원본 발간일, 1975)

40) Sears, R. R. (1970). Relationship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self-concepts and gender rol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41*, 267-286.

41)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Y : Norton.

42) Thorne, A. & Michaelieu, Q. (1996). Situating adolescent gender and self-esteem with personal memories. *Child Development, 67*, 1374-1390.

43) Trusty, J., Peck, H. I., & Mathews, J. (1994). Achievement,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concepts of fourth-grade students. *Child Study Journal, 24*(4), 281-298.

44) Trowbridge, N. T. (1972).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concept of childre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3*, 63-65.

45) Wu, Yi-Ju, Smith, D. E. (1997). Self-esteem of Taiwanese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7*(1), 1-19.